

지난 4월 11일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인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경기도지학과(이하 ‘경지’)에 대한 화제 글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글은 ‘지나가는 경지와 재학생인데 경지와 모르는 사람 많아서 글 좀 끄적여 봤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글의 내용은 경 지지도학과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으며, 많은 한국체대 학우가 댓글로 경기도지학과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는 간단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우리 학교는 재학생 3,0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작은 학교임에도, 학과 간 교류가 적어 다른 단과대학, 학과 등 서로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상황도 이러한 우리 학교의 특성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같은 학교 학우임에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서막한 학과 간격을 좁히고, 동상이문을 줄여 조 금 더 다양한 한국체대를 만들기 위해 학보사에서 경기도지학과에 대해 알아봤다.

박소영 기자 qktrhdud0330@naver.com

그들이 걸어온 길

경기도지학과는 한국체대 스포츠과학대 학에 체육학과와 함께 소속된 학과이다. ‘스 포츠로 세상을 연결하는 스포츠 혁신 리더’ 가 학과의 인재상이며, 이름에서도 알 수 있 듯 지도자나 코치, 각종 스포츠 업계 종사자 육성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지학과는 ‘경기 임상실적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며 플 러, 당구, 클라이밍, 탁구, 킥복싱 등의 개인 종목과 축구, 농구, 배구, 댄스스포츠, 세팍 타크로 등의 단체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3년, 경기도지학과가 처음 개설된 당 시에는 ‘경기지도과’로 불렸다. 당시 한국체 대에는 체육학과와 경기도지도와 두 개의 학 과만이 존재했다. 그러다 2003년, 학부제 도

입으로 경기도지도는 체육학과와 통합되어 ‘체육학부’로 변했다. 체육학부는 다시 ‘체 육학부 체육학전공’과 ‘체육학부 경기지도 전공’으로 나뉘었는데, 전자가 현재의 체육 학과, 후자가 현재의 경기도지학과라고 생 각하면 된다. 이후 2006년 체육학부는 다시 체육학과로 변하면서 경기도지학과와의 모습 은 한국체대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그러던 2020년, 현재의 ‘경기지도학과’ 의 신설이 예정되었고, 다음해인 2021년, 총 30명의 학생이 경기도지 21학번으로 한 국체대에 입학했다. 당시 ‘경기지도학과 신 설 준비위원회’ 위원이었었던 윤지은 경기지 도학과장(이하 ‘윤 학과장’)은 “경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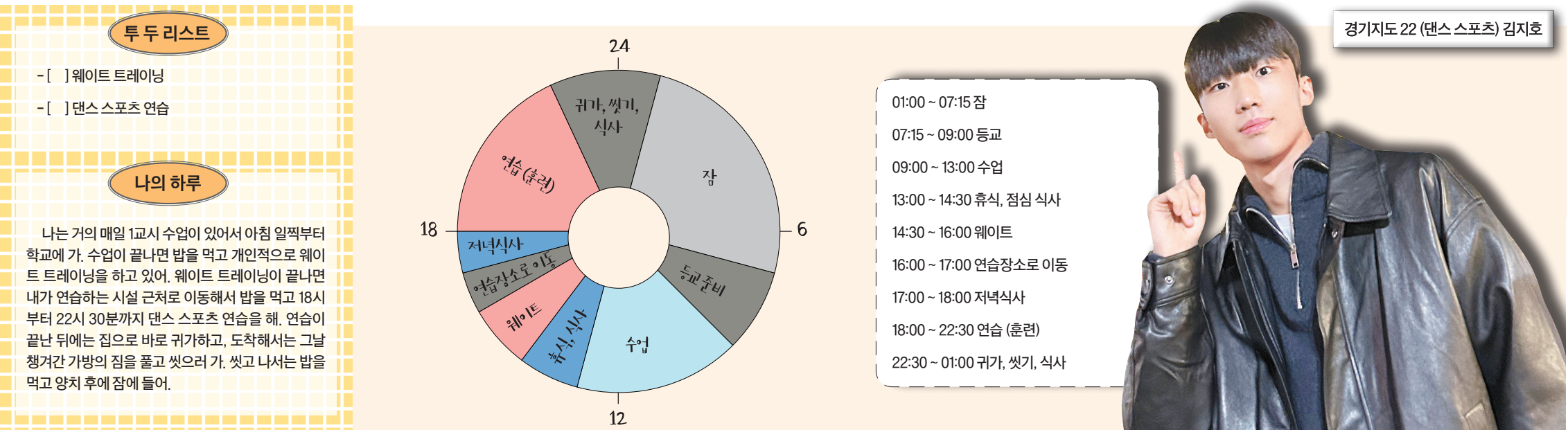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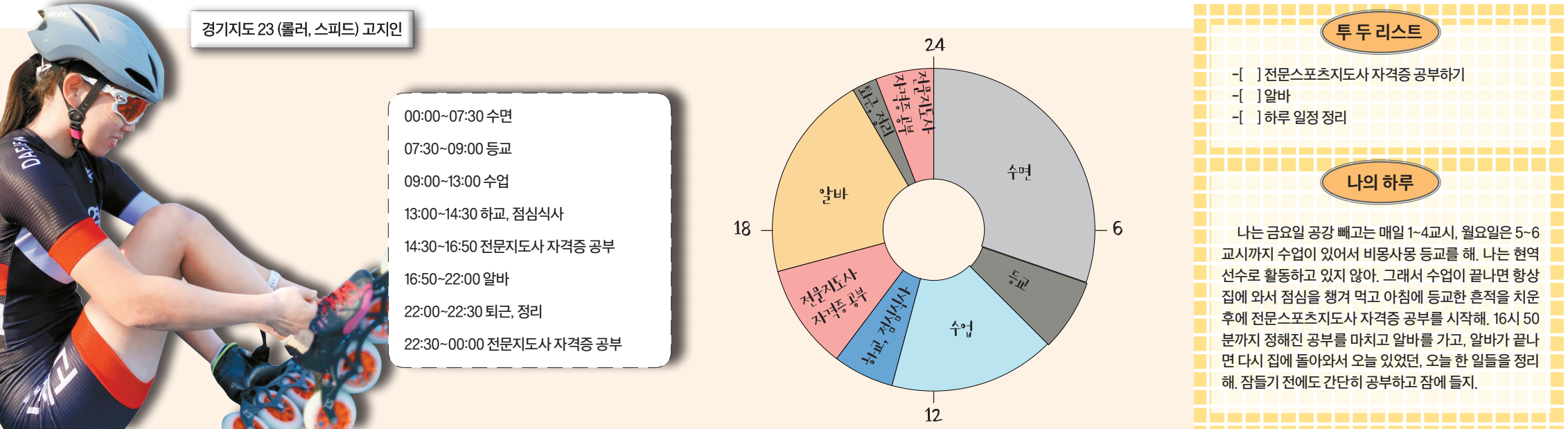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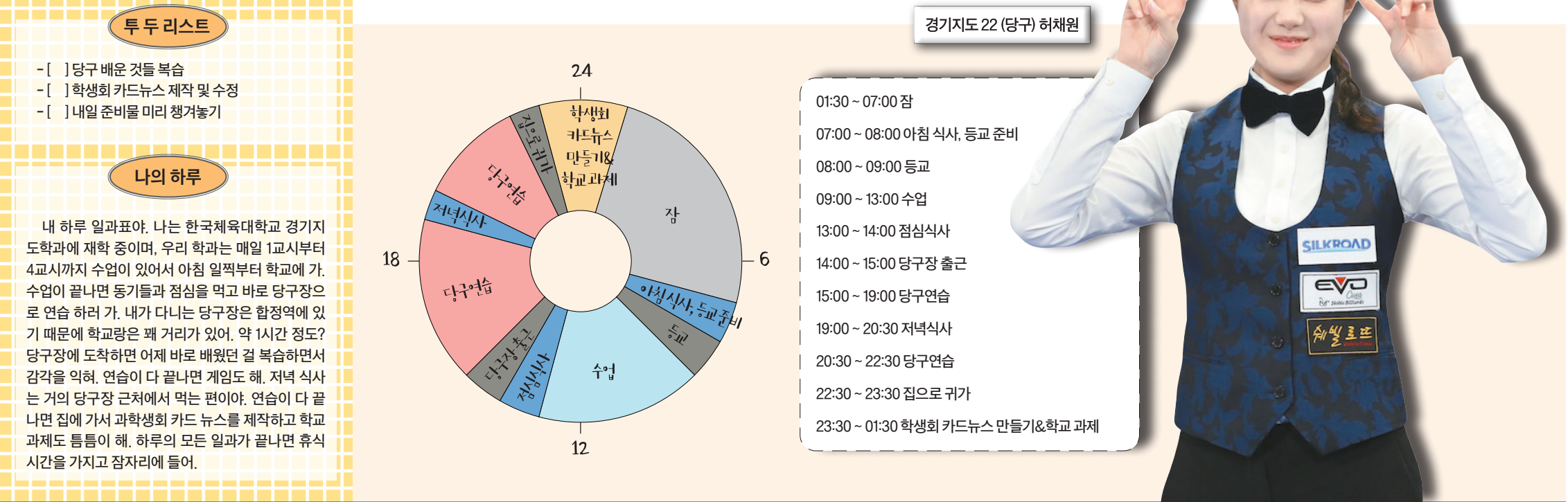
과 폐지와는 별개로, 체육학과에서 육성하 지 않는 종목의 학생들이 생활스포츠대학 소속 일반학과에 입학하여 선수 생활과 학 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일반학과 에 입학한 학생선수들은 체육특기자가 아 니었기 때문에 모든 학업을 마친 후에 외부 훈련을 해야 하는 구조였다. 그 때문에 중 도에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 다.” 이어, “대학평가를 위한 학과 구조조 정 과정에서 체육학과에서 육성하지 않는 종목의 학생들을 위한 학과를 개설하게 되 었고, 학과 명칭은 국립대학교 설치령에 명 시되어 있는 경기도지학과를 사용하게 됐 다.”라고 신설 이유를 밝혔다.

경기인의 일상

경기지도학과 학우들은 어떤 일상을 보낼 지? 댄스 스포츠, 당구, 플러(스피드) 각기 다른 종목 3명의 학우가 자신의 하루를 공 유해했다.

현재 경기지도학과 학우들은 크게 현역 선수와 은퇴 선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현역 선수로 활동 중인 학우의 경우, 주로 체 도에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 다. 은퇴 선수의 경우는 전문실기 종목 훈련 를 듣고, 그 뒤로는 ‘전문실기 현장실습’을

듣는다. 이는 개별 종목 훈련으로, 4학기를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다. 경기지도학 과의 경우 학교 내에 훈련 시설이 갖춰져 있 지 않아 외부 훈련 시설에 가서 훈련한다. 외 부 시설과 지도자에게 훈련받기 때문에, 약 일주일일에 1번 훈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는 식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다. 은퇴 선수의 경우는 전문실기 종목 훈련 대신 지도자 연수를 진행한다.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다른 우리

경기지도학과와 체육학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참 많다. 두 학과 모두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이다. 또, 두 학과 모두 다수의 현역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기숙사 사용이나 등록금 면제, 교 내 훈련 시설 이용은 현재 체육학과 선수에 게만 편향되어 있다.

실제로 경기지도학과 학우들이 학교생활 을 하며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만에 경기지도학과 학생회장 최민서 (경기지도 21 스타트 치어리더) 학우는 ‘금 전적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는 체 육학과와 똑같은 스포츠과학대학이지만, 경우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 고, 경기지도학과와 달리 등록금도 전액 다 내고 있고, 기숙사도 사용하지 못한다. 지원받는 사 랑은 스포츠과학대학 외의 타 학과와 똑같 이 교내 장학금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이 사비로 운동하는데, 등록금에 훈련 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본가가 지방인 학우들은 기숙사 사용이 어려워나 자취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3중으로 든다. 그런 점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며 학생들이 겪 는 고충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30여 년 전 경기지도과, 체육학

부 경기지도전공 시절에는 어땠을까? 과거 경기지도학과를 졸업한 동문을 수소문한 결과, 현역 선수의 경우 체육학과와 똑같이 기숙사 사용, 등록금 면제, 훈련 시설 이용 등이 가능했다고 한다. 현재는 체육학과 학 우에도 은퇴 선수의 경우 기숙사 사용 등의 학과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 면, 당시의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이 받는 지 원은 체육학과 학생들이 받는 지원과 매우 유사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경기지도학과가 체육학과와 다른 지원을 받는 이유는 ‘학과 방향성 변경’이 가장 큰 이유이다. 윤 학과장은 “체육학과와 똑같은 스포츠과학대학이지만, 경우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 고, 경기지도학과와 달리 등록금도 전액 다 내고 있고, 기숙사도 사용하지 못한다. 지원받는 사 랑은 스포츠과학대학 외의 타 학과와 똑같 이 교내 장학금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이 사비로 운동하는데, 등록금에 훈련 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본가가 지방인 학우들은 기숙사 사용이 어려워나 자취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3중으로 든다. 그런 점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며 학생들이 겪 는 고충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30여 년 전 경기지도과, 체육학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지원 사항

우리 학교 학칙 ‘제4장 체육특기자 관리 및 육성 정책’을 보면 ‘제74조(생활관 생 활)’ 항목에서 우리 학교의 생활관과 관련 된 규정을 알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령으로 공포된 ‘국립학교 설치령’을 근거 로 하고 있다. ‘국립학교 설치령’에는 한국 체대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설립·경영하 는 학교(국립 학교)의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데, 우리는 여기서 경기지도학과에 대한 지 원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학비 보조 등) 을 보면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 기도지도과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 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한국체육대학

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은 재 학 중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 야 한다. 이 경우 한국체육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 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기지도과의 개 설 이후인 1988년부터 명시된 내용으로, 현 재인 2023년 개정안까지도 명시되어 있다.

현재 우리 학교의 학칙에는 생활관 생활 뿐만 아니라 경기력 우수자 격려금 지급 규 정, 장학성과 관련된 내용에서 체육학과만 을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도학과 가 다시 만들어지기 이전에 개정된 규정이 긴 하지만, 경기지도학과가 만들어진 지 3년 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된 학칙 개정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엄연한 학교의 실 수이자 문제이다.

“여러분 모두가 경기지도학과와 주인공입니다.”

윤 학과장은 방향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경 기도지도학과 학생들에게 “우리 학과는 혁신 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현해 나갈 수 있다. 학교 내에서의 협업과 지식 공유, 적극 적인 참여가 우리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할 것이다.”라고 학과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냈다. 또한, “스포츠 현장의 요구에 부 응하기 위한 실무 경험과 네트워크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싶다. 학교나 외부 조직과의 협력 프로젝트, 인턴십, 학술 대회 참가 등 을 통해 실천에서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과는 지속적 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변화에 빠 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주 도적으로 익히며, 선도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체육 인재로 서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사항 들을 언급했다.

윤 학과장은 끝으로 “여러분 모두가 경 기도지도학과와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협업과 지식 공

유,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의 성공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훈련과 더 붙어 앞으로의 학업과 연구에 흥미와 열정 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 학과가 현대 스포츠 분야에서 성공적인 기여를 이루어나기를 기 대합니다. 또한, 함께 노력하고 성장하는 여 정에서 모두가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길 기 대합니다.”라고 전하며 학과와 학생들에 대 한 애정을 드러냈다.

2년째 경기지도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 는 최민서 학우는 “우리 학과는 이제 조금씩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 고 어설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학생회가 하는 일을 맡으며 지지를 주고, 따라와 주면 좋겠다. 학과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부족한 점 있으면 피드백 많이 해주시 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어, “경기 지도학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학과이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 있는 학과로 만들어 가 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에 저희 학생 회가 열심히 하겠다.”라며 경기지도학과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올림픽 종목, 비인기 종목 학과 아니야?”

비교적 신선헌과이자 소규모 인원, 적은 전 종목에 비해 한 국체대 학우들 사이에서는 경기지도학과에 대한 ‘카더라 통신’이 전 준 중 하나이다. 경기지도학과 육성 종목 중 르네라는 이야기는 ‘육성 종목’에 관한 것 이다. 경기지도학과와 체육학과와의 차이 를 올림픽 종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 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설명하며 경기지 도과는 체육학과에서 육성하고 있지 않은 종

목 중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 전 종목에 기준으로 선정한다. 또한 각 경기 종목단체의 인성대회 및 대회 비중도도 기 과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입방아에 오 작지 않은 종목이 올림픽 정식 종목이다. 대 표적으로 스포츠클라이밍, 요트, 유수, 스 케이트보드, 트라이애슬론, 노르딕스키 등 ‘비올림픽 종목’, ‘비인기 종목’이라는 의견 이 허다하다. 하지만, 해당 소문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윤 학과장은 따르면 “경기지도학 과는 체육학과에서 육성하고 있지 않은 종



도쿄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 장면 출처: 경기지도21이도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요?

경기지도학과와 어려움은 금전적 문제만 이 아니다. 먼저,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학과 학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 23 불리) 학우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전문 실기 현장실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직 23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7번, 저희는 생활체육대학 타 학과와 똑같이 5번의 공결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수 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실기 현장실습 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알지 못하고, 수 시로 LMS를 확인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물 어보고 있지만 알 수 없어 공지사항만 기다 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앞서 언급했듯,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은 교내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 훈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 및 지도 자 연수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학과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본가가 서울인 학생들의 경우 비 교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과 부담은 배가 된다.

다음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학과의 방향성 문제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지 호 학우와 하재원 학우는 “우리가 정말 체육 과와 같은 스포츠과학대학 소속인지 생